

검진체계 정착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 노력



이 관 영

1991년도 건강관리사업 청사진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혜택을 인간들에게 부여했을 뿐 아니라, 산업발전, 경제 성장의 결과는 인간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발전은 사람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까지 문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보건 문제, 즉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관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비 상승 역제의 필요성이, 해결되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주어지게 했다.

이러한 질병 양상의 변화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를 근거로 하여 '82년 본회에서 시작한 국민 건강 검사 사업은, '86년 검사물량이나 예산면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로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의 건강검사 사업은 여러가지 측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의료보험 수가 수준의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건강검사의 기회를 부여했을 뿐 아니라, 건강검사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농어촌 오지 주민, 영세민, 부녀자 건강검사 사업을 이동 검진버스를 이용해 전개, 실시함으로써 전 국민에의 건강검사기회 부여에 기여하였다. 또한 특수업체부 성병검사, 의보조합 산하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사 등을 비롯해 AIDS상담 및 검사 실시, 소아성인병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등 실로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건강 관리의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다.

예방의학적 차원의 평생건강관리가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모든 나라의 복지정책에서 국민건강관리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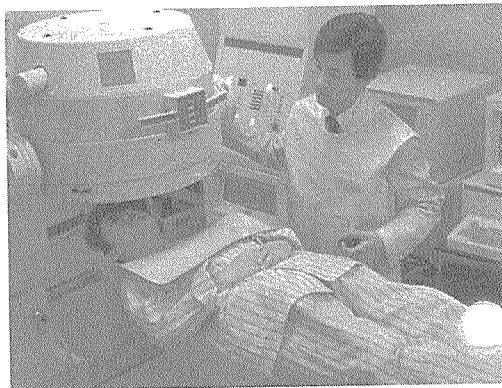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민 건강관리의 문제가 정부 정책의 주요 사안이 되었으며, 그 구체적 일로써, 정부에서는 최근 '국민 식생활 지침'을 제정·선포하였으며 국민 보건·의식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국민 건강검사 정착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협은 기생충박멸협회 때부터 착실히 쌓아온 경험, 인력, 지부조직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부의 사업에 동참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 결과, 오늘에 이르러서는 가장 능률적인 전국 조직망과 최신 장비를 동시에 갖춘 국내 유일의 전문건강진단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정립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민 건강 관리 정착을 위해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미래는 이제까지 걸어 온 길보다 훨씬 더 길고 넓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즉, 국민 건강관리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검진 외에도 음주, 흡연, 식생활, 운동, 환경, 생활문화 등에 대한 보건교육의 정착도 필요하며 최근들어 심각한 건강 저해 요인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공해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보다 편리하고 보다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시설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



전 생애 검진 체계의 정착은 동등한 건강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려는 세계적 염원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이러한 일들을 모두 이루어 낼 수는 없다.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이루어 내기 위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한다.

1991년도의 건강관리사업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현단계에 있어서의 양질의 건강 서비스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Life Time Health Monitoring system(전 생애 검진체계)의 마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전 생애에 걸친 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사망 원인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또한 이 성인병이 이제는 어린이들에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며 필수적



인 것이 바로 건협이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전 생애 검진체계'의 마련을 통한 국민 건강 관리의 정착인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91년도에 건협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첫째로,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건강 검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자리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작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소아성인병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비롯해 성장기 아동들의 잠단 검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정착시키는 한편 기존의 건강관리 사업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전 생애 검진체계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대 국민 계몽,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야 할 당사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가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건협 내부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미 시작된, 업무 전산화를 완전히 정착, 활성화시키고 건강검사 결과의 신속한 처리, 검사의 정확도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건협은 '91년도에 건강검사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특별회원 관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부별로 모집된 회원들

에게는 무료 건강검사의 혜택과 건강소식 등을 무료 배부 함으로써 본회의 2차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검사 장비 및 기술의 보완, 확충, 건강 검사자의 사후관리 등이 '91년도에 우리가 이루어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성장과 국민 보건 의료 문제의 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또한 국가에 대해 보건 의료 사업을 중요시 하고 강화해야 하는 정책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 검사 기관으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온 건강관리협회는, 이제 2천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돋움을 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전 생애 검진체계의 정착은 단지 건강관리협회를 위한 사업이 결코 아니다. 국민 건강 관리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건강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세계적 염원이기도 하며 특히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각 개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91년에는 이 검진 체계의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건강관리협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